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본격화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사진제공=나주시청

나주시,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143억 규모 사업 자연·건축 조화 설계안 확정...관광·반려문화 융합공간

나주시가 영산강을 중심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본격화하며 반려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시는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8개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평 건축사사무소 김동우 대

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지역 상징성, 창의성 확보를 중점으로 추진됐으며 건축, 도시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선작은 토지 활용을 극대화한 합리적인 배치와 내부와 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기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영산강의 자연환경을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과 입체적 공간 구성으로 상징성과 완성도를 갖춘 설계안으로 평가됐다. 사업 대상지는 금천면 원곡리 104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143억원이 투입되고 반려동물 친화형 문화 인프라 구축과 관광 자원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겸비한 우수한 설계안을 확보했다”며 “향후 실시설계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반려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명품 반려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통으로 배우는 부모교육 ‘꿈생품사 강진향교’ 강진문화원은 최근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꿈생품사 강진향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군 육아지원센터와 연계해 강진향교의 전통 공간을 배경으로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강진군청

화순 청풍면, 25일 ‘화학산 고산 철쭉제’ 개최 등산로 입구 주차장...산신제·축하공연 등 볼거리

화순군 청풍면은 오는 25일 화학산 일원에서 ‘제18회 화학산 고산 철쭉제’를 개최한다. 올해 철쭉제는 지난해와 같이 화학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열린다. 축제 장소를 정상부가 아닌 등산로 입구로 정해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고산 철쭉과 산신제, 공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청풍면 청년회가 주관한다

다. 행사 당일 25일 오전 10시 10분에 면민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10시 30분에 기념식이 열린다. 이어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순재 청년회장은 “이번 행사에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해 화학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희귀한 고산 철쭉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기 기자 vip3355@gwangnam.co.kr

여수, 농·어·임업인 공익적 가치 제고

2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선불카드’ 지급

여수시가 농·어·임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1일부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시는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연내 사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남 시·군 중 유일하게 ‘농어민 공익수당 선불카드’ 형태로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류를 갖추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지급된 카드는 여수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증업소·사행산업·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는 기한이 지나면 금액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연내 사용해야 한다. 분실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아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교동 소재)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선불카드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공익수당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 농번기 인력난 해소 총력

24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신청

보성군은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8월부터 최대 8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고용주는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시급 1만320원(월 215만68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보장

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고용주는 냉난방 설비와 온수 사용이 가능한 샤워 시설을 갖춘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근로 장소 변경, 근로 조건 미이행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인력 배정 취소 및 벌점 부과 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된다. 배정 인원은 작물별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지원된다. 신청 최소 기준으로는 시설원예·

특작의 경우 1000㎡ 이상, 과수·일반채소는 5000㎡ 이상이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로 환경 정기 점검과 함께 비자 발급 간소화 등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464농가에 총 20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팀(061-850-538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해남, 취약계층 고유가 대응 생계비 5만원 지급

3859가구 대상 도비 100% 1억9250만원 확보

해남군이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고유가 상승과 불안정한 민생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대응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최근 비상경제 민생복지 점검을 위한 도·시·군 영상회의 등에서 강조된 ‘민생경제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비 100%를 확보, 총 1억925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총 3859가구로 가구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5월 11일까지를 집중 지급 기간으로 정했다. 일반계좌 보유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입류방지계좌 및 계좌 미등록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주 추진 실적을 점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동 상황 관련 고유가 상승에 대응한 한시적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도내 22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며, 해남군은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함평, 생태계 교란 방지 ‘왕우렁이 수거’

3단계 추진...벼·미나리 등 농작물 피해 예방

함평군이 친환경 농업으로 활용하는 왕우렁이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거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따라 왕우렁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왕우렁이로 인한 벼·미나리 등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우렁이생산지협회, 마을 부녀회·청년회 등과 협조해 읍면별 왕우렁이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왕우렁이의

유실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 시기별 ‘3단계 집중 수거’에 나선다. 영농철인 4월에는 농수로 진류 개체를 수거해 왕우렁이 유입을 막는다. 7월과 벼 수확기에는 농경지 인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왕우렁이를 유인·수거하고 율동 방지에 나선다. 군은 수거한 왕우렁이를 관련 지침에 따라 전량 폐기할 예정이며, 특히 식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왕우렁이 수거 실적과 참여 인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인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영광,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범위 확대

기준 개선...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포함

영광군은 구직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2026년 취업연계형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보다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부 교육과정에 제한이 있었던 기존 지원 기준을 개선,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고, 취·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출한 교육비 50%(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교육 출석률 80% 이상 및 자격증 취득을 완료한 경우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고흥 ‘천년사찰 세계명상 관광’ 공모 선정

천년의 정적과 청정 자연이 만난 치유의 여행

“남도 천년사찰서 명상 여행 해봤는가” 고흥군이 답을 내놨다. 도내 유서 깊은 사찰을 기반으로 명상과 치유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고흥군이 거점으로 꼽힌 곳은 천년고찰 능가사다. 능가사의 고즈넉한 사찰 환경과 다도해의 청정 자연을 결합해 차별화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능가사 인근엔 팔영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팔영대교,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명상 관광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전남도 주관 ‘천년사찰 세계명상 관광’ 공모에 선정돼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싱싱볼 사운드 테라피 △해변



명상 △스님과의 차담 △침묵여행 질문 명상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겠다는 방침이다. 녹동항 드론쇼·고흥유자축제 등 지역 행사에 숙박 할인 정책을 접목해 관광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흥=고효승 기자 city@gjdream.com